

교육원 소통 이제는 통했나?

교직자스님들, 교육원 개선안 수용 시사... 총무원 예산 아끼지 않겠다

“교육원이 한문불전전문대학원 설립안과 같은 계획을 밝혀줬다면 성명서 발표 같은 극단적 행동까지는 안 갔을 것이다.” (전국강원교직자연합회장 법광 스님)

“강사들이 승가교육의 변화를 무조건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교육원이 처음 교과목 개선안에서 제시한 과목들은 강사들이 감당하기 벅찬 수준이었다. 승가교육을 향한 강사들의 진정성을 밝고듯 싸움, 밝고듯 지키기 위함이라며 왜곡하지 말아 달라.” (前 동학사 승가대학장 일연 스님)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웅)이 6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한문불전전문대학원 설립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 교육원의 승가교육 개선안에 강한 반발을 보여 온 교직자스님들이 교육원의 수정안을 수용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날 세미나는 네 차례에 걸친 교

육원의 전문대학원 설립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의 마지막 행사로 은해사 승가대학장 지안 스님, 교직자연합회장 법광 스님, 송광사 승가대학장 일귀 스님, 범어사 승가대학장 용학 스님, 前 통도사 승가대학장 우진 스님, 법주사 승가대학장 철안 스님, 봉선사 능엄학원 정원 스님, 前 동학사 승가대학장 일연 스님, 동학사 승가대학장 법성 스님, 고려대장경연구소 오윤희 실장,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박상준 연구교수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토론에서 교직자 스님들은 교육원의 개선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냈으나 교육원의 지속적인 소통 노력으로 교육원인을 수용·이해하는 교직자스님들이 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졌다.

범어사 승가대학 용학 스님이 “승가교육 개선은 제도나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라 말했고, 봉선사 능엄학원 정원 스님은 “6년 동

안 <화엄경> 하나도 공부하기 힘들다. 한문불전전문대학원 설립안에서 제시한 수업연한 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前 동학사 승가대학장 일연 스님도 “구족계를 받은 승려의 교과목치고는 너무 많다”고 동의했다.

통도사 승가대학장 우진 스님은 “교육원안을 보면 불전전문대학원이 강원 대처하는 교육기관으로 설정됐다. 교육대상은 강원과 전문대학원이 달라도 교육내용·목적 같아 보인다”며 “선·율장·초기불전·한문불전 등 나누어 전문대학원이 교육기관 난립을 초래해 승가교육이 부실화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승가교육 제도화되면서 30년간 하향평준화 돼 왔다. 행정부서인 교육원이 교과목, 교육방법론까지 말하는 상황 부적절하다”며 “수행자에게 실용주의적인 지식교육을 강조하는 것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강원에 대학원에 설립하는 등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도 승가교육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말해 교육원 안에 반대를 분방히 했다.

이에 앞서 교육원장 현웅 스님은 인사말에서 “전문대학원 설립안이 확정되는 11월까지 교수스님들이 자라한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동국대경원교와 유사한 한문불전 번역기관(가칭)한문불전번역원을 설립하겠다”, “전국의 전·현직 강사스님들을 지원하겠다”며 교육원 승가교육개선안에 대한 교직자스님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한편, 교육원이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초기불전전문대학원 설립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참석자들 다수가 초기불교가 조계종 승가교육에서 공론화되는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석·박사 과정까지 책임진다

조계종, ‘장학금지급령’ 발표

국내·외 대학원 석·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 조계종 스님들은 앞으로 과정을 마칠 때까지 학비 걱정을 덜게 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웅)은 6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일 종무회의에서 ‘장학금지급및관리에관한령’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제정된 ‘장학금지급및관리에관한령’에 따르면 조계종 재적 비구·비구니 중 국내·외 대학원에서 수학하는 스님은 과정 수료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급받는다.

종립대학에서 수학중인 스님 중 석사과정은 학기별 225만원씩 연 450만원, 박사과정은 250만원씩 연 500만원을 받고, 일반대학 석사과정은 450만원씩 연 900만원, 박사과정은 1000만원을 지급받는다.

해외 유학생 중 일본 소재 대학은 연 1200만원, 중국 지역은 1000만원, 인도·동남아 지역은 800만원, 미국·유럽 지역은 30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내년 6월 중 설립될 (가칭)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하는 스님들도 매월 일정액의 연구비를, 교육교역자 스님들도 프로젝트 수행비 명목으로 일정액이 지원된다.

지금까지 조계종 장학금 선발은 그 대상이 해외에서 유학중인 스님들로만 한정돼 있었다.

지급금액과 인원도 불규칙하고 일회성에 머물러 장학 목적에 실효성이 떨어지던 지적이 따라왔다.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해외장학생 선발과 종비생 선발기준으로 이원화된 장학제도를 종단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법령을 마련했다. 장학금 선발 과정부터 불교학에

만 국한하지 않고 불교와 종단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공자를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들 종단(교육기관, 연구기관, 사찰 등)에서 장학 수혜기간만큼 활용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장학금 지급규모와 전공분야 선정, 장학금 선발은 승가교육진흥위원장이 위촉하는 9~11인으로 구성되는 장학위원회에서 집행한다.

교육원은 7월초까지 장학위원회 구성 후 7월 중순경 장학금 선발공고를 시행하고, 9월 중 장학금 선발과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6~17일 경주 불국사에서 열린 제2차 승가교육진흥위원회 회의에서 “승가교육과 관련한 예산을(종단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4대강 정부·환경단체 의견 청취키로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의견 청취를 위해 정부와 환경단체 관계자를 초빙해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봉은사 사건은 소위원회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 차원에서 총무원과 봉은사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10월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잠정 합의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는 6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의했다.

봉은사소위원회는 자승 스님을 위원장으로 율백·보광·법안 스님과 성태용 교수로 구성됐다. 소위원회는 25일 오후 1시 소위원회회의

열고 총무원과 봉은사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4대강 관련 의견 청취는 화쟁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최되는 25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화쟁위원회 총무원 법안 스님은 “우리도 화쟁이 잘안되더라”고 말해 화쟁위원회의 내부 조율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조동섭 기자

해인사 토지매각 진상 조사 촉구

‘해인사 현안문제 파악을 위한 소위원회’가 종단의 해인사 토지 매각 승인에 유감을 표명하고, 호법부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것을 끝으로 활동을 종결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부와 위원회 해인사 현안문제 파악을 위한 소위원회(위원장 조격, 이하 소위원회)는 6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소위원회스님들은 “4월 초 소위원회가 해인사 토지매각 유보를 요청했음에도 종무회의에서 토지매각을 승인한 것은 유감이다. 호법부가 해인사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동섭 기자

유 장관 “템플스테이 재조정” 물의 조계종 “부적절한 발언 유감스럽다”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이 대구지역 개신교 관계자를 만나 템플스테이 사업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며 향후 사업 재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소 불교계에 호감을 보여 온 유 장관의 행보와는 상반된 발언은 불교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국민일보 쿠기뉴스(6월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유인촌 장관은 4일 문광부 청사에서 대구기독교총연합회(회장 이흥식·평산교회 목사) 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템플스테이가 운영되는 사찰) 몇 군데를 다녀보니 템플스테이용으로 짓는다고 하면서 너무 크게 짓고 있더라”면서 “그래서 더 이상 짓는 것은 곤란하며 새로 짓는 것은 못하게 하라는 지침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사찰이) 기존에 갖고 있던 방이나 화장실이 불편하면 고치는 정도로 해야지 호텔처럼 20~30개나 되는 방을 새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본다. 불교계 내부에서조차 (정부 지원을 받아 사찰을 증개축하는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인촌 장관은 불교테마공원에 관해서도 “팔공산 불교테마공원은 이를 자체부터 잘못됐다. 초조대장경을 복원하는 데 어떻게 600억원이나 들어 가냐.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불교계에 집행되는 국가예산이) 관행처럼 너무 오랫동안 해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바꾸면 엄청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템플스테이사업단 등 불교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불교계에서는 유인촌 장관이 호텔식 운운한 시설에 대해서 “사찰 템플스테이라고 해서 초가집에 재래식 화장실을 갖춰야만 하느냐”

“20~30개 침대방을 갖춘 호텔식 시설이 불교계에 어디 있느냐”는 항의가 이어졌다.

한국템플스테이사업단 이민우 기획홍보팀장은 “예산 집행에 ‘방만하다’는 표현이 사용되려면 전용 등 불법 집행된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템플스테이 예산은 매년 국회·감사원 등에서 감사를 받고 있고, 그 결과 큰 이상이 발견된 적은 없었다”면서 “주무장관이 ‘방만’이라는 단어를 감성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은 “템플스테이는 대통령 공약 사업이며 정책적 사안으로 주무장관이 이웃종교인에게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갖고 장관 발언의 진의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 관계자는 “종단 입장이 결정되는 대로 문광부에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도의국사 다례재 봉행 조계종은 6월 13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종조 도의 국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종정 법전 스님은 원로회의 부의장 밀은 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사의 골수를 취하여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종도들의 정진을 당부했다. 조동섭 기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헐자. 만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양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동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발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 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인신 석연 대종사께서 전범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종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엮시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린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회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발,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종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 입종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장 불탑사 외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완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헌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도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범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